

羅唐戰爭 終戰期 전황의 새로운 이해

윤경진*

1. 머리말
2. 675년 전황의 검토
3. 伎伐浦 전투의 비판적 이해
4. 맺음말

1. 머리말

신라는 唐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공멸했으나 백제 舊地의 점유와 고구려 遺民의 수용을 둘러싸고 당과 갈등을 빚은 끝에 무력 충돌을 벌였다. 이 전쟁은 신라가 외세를 축출하고 ‘통일’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신라 삼국통일론의 핵심 증거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¹⁾

하지만 전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에 논란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나당전쟁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동향과 전망」, 『軍史』 100, 2016 참조.

것이 終戰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신라의 당군 격퇴”라는 이해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는 『三國史記』 기록의 영향이 크거니와 신라 ‘통일’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인식과도 관련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당이 吐蕃 문제로 인해 전략적으로 철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²⁾ 그리고 토번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신라의 방어에 방점을 찍는 절충적 입장도 있는데, 이 역시 신라의 ‘통일’을 긍정하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³⁾

종전 원인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나당전쟁의 마지막 기사로 등장하는 伎伐浦 전투이다. 당시 당의 지휘관으로 나오는 薛仁貴가 유배 중이었음을 근거로 기벌포 전투가 실제로는 671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본 것이다.⁴⁾ 이것은 나당전쟁에 관한 『삼국사기』 기사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사서보다 『삼국사기』 기사의 신뢰도가 높다는 반론도 있었고,⁵⁾ 이를 다시 반박한 의견도 있었다.⁶⁾ 그리고 한국 학계는 여전히 기벌포 전투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조이다.⁷⁾

그런데 나당전쟁의 내용에 대한 비판은 기벌포 전투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나당전쟁 종결의 전기로 평가되는 賈肖城 전투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었다.⁸⁾ 그동안 매초성 전투는 『삼국사기』 기사에 의거하여 신라가 승전한 것으로 이해했으나 그 원전인 『新唐書』 기록

2) 徐榮教, 「羅唐戰爭과 吐蕃」, 『東洋史學研究』 79, 2002 ;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 拜根興, 「“나당전쟁” 연구 중의 몇 가지 문제」, 『中國學報』 46, 2002(『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3) 이상훈, 「羅唐戰爭의 종전배경과 新羅의 역할」, 『東北亞歷史論叢』 32, 2011(『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4) 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2, 1930(『滿鮮史研究』 上世12, 吉川弘文館, 1951).

5) 존씨·재미슨, 「羅唐同盟의 瓦解 : 韓中記事 取捨의 比較」, 『歷史學報』 44, 1969.

6) 拜根興, 앞의 논문, 2002.

7) 李相勳, 「羅唐戰爭期 伎伐浦 戰鬪와 薛仁貴」, 『大丘史學』 90, 2008(앞의 책, 2012).

8) 윤경진, 「賈肖城 전투와 羅唐戰爭의 종결 : 『三國史記』 신라본기 675년 2월 기사 분석」, 『사림』 60, 2017.

대로 신라의 패전으로 보았다. 매초성의 위치도 그동안 연천이나 양주에 비정하던 것을 비판하고 신계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백제 때부터 평양 진출의 교두보였던 水谷城(俠溪)의 옛 읍호인 ‘買且忽’이 ‘買肖城’과 상통한다는 것에서 뒷받침되었다.

이와 함께 매초성 전투가 사실상 나당전쟁의 마지막 전투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675년 말미에 정리된 전투 기사는 전사자의 포상과 관련된 일괄 자료를 채록한 것으로서 모두 매초성 전투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나당전쟁의 종결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 기사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일부 전투는 그 위치를 다시 짚어볼 여지가 있고, 당시 전투를 종합하는 전황 이해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당군과 신라군의 전쟁 목표와 전략이라는 바탕에서 개별 전투의 성격을 기늠할 필요가 있고, 전쟁 결과로 신라의 북방 영토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전투 지역과 영토의 연관성도 고려할 요소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기벌포 전투를 조망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바탕을 두고 675-676년 기사로 정리된 신라와 당 사이의 주요 전투의 내용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 작업은 당시 형성된 전선 지역의 전투와 후방에 해당하는 기벌포 전투로 나누어진다. 매초성 전투는 前稿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2장에서는 먼저 전선 지역의 전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675년의 첫 전투인 七重城 전투, 매초성 전투와 더불어 675년 9월 기사로 나오는 泉城 전투, 675년 말미 기사로 일괄 정리된 阿達城石峴城赤木城 전투, 676년 7월 기사로 되어 있으나 이들과 같은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되는 道臨城 전투, 그리고 열전에 보이는 買蘇川城 전투가 해당한다. 이들 각각에 대해 전투 내용과 위치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당군이 교두보 확보를 위해 연안 지역에서 벌인 전투와 신라의

북방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중 후자는 신라의 북방 경계 형성과 직접 연결된다.

3장에서는 기벌포 전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설인귀 문제를 후대에 특정 인물을 가탁하여 내용을 구성한 것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하고, 675년 전황 및 해당 기사에 원전에 대한 이해 등을 매개로 이 전투가 당이 熊津都督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판단할 것이다.

2. 675년 전황의 검토

가. 七重城·貫蘇川城·泉城 전투

1) 七重城 전투

문무왕이 백제 토지를 차지하고 고구려 叛衆을 받아들이자 당 고종은 674년 정월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고 金仁問을 신라왕으로 삼아 보내는 한편, 劉仁軌를 雞林道大總管으로 삼아 李弼李謹行과 함께 신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⁹⁾ 그런데 실제 당군의 공격은 이듬해 2월에 비로소 이루어졌다.¹⁰⁾

당시 상황에 대해 『新唐書』 기록과 『三國史記』 기록 사이에 차이가 보인다.

9)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4년 정월

10) 『新唐書』 劉仁軌 열전에는 咸亨 5년(674) 雞林道大總管 임명에 이어 七重城 전투까지 서술했는데, 이는 전황 전체를 하나로 통합 정리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황제의 명령과 출정 사이에 1년여의 공백이 생긴 것은 吐蕃에게 천산남로를 상실한 당이 천산북로마저 위협을 받게 되자 그 방어에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서영교, 앞의 논문, 2002, 12-17쪽).

① a. 上元 2년 2월에 劉仁軌가 그 무리를 七重城에서 격파하고 b. 靺鞨兵으로 바다로 가서 南境을 공략하여 斬獲한 것이 아주 많았다. c. 詔書를 내려 李謹行을 安東鎮撫大使로 삼고 d. 買肖城에 주둔케 하니 세 번 싸워 오랑캐가 모두 패배하였다.¹¹⁾

② a. 劉仁軌가 우리 군대를 七重城에서 격파하였다. b. 仁軌가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니 c. 조서를 내려 李謹行을 安東鎮撫大使로 삼아 經略하게 하였다.¹²⁾

근래 두 기사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삼국사기』 기록은 『資治通鑑』의 것을 채용한 것이지만 해당 기사의 내용은 『신당서』의 것을 원전으로 하며, 『삼국사기』가 이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편집이 가해졌다는 것이다.¹³⁾

위의 두 기사를 대조해 보면 우선 『신당서』는 말갈병의 공격 사실을 담고 있는 반면, 『삼국사기』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그리고 매초성 전투의 경우 『신당서』에는 칠중성 전투에 이어 정리되어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9월 기사로 따로 정리되어 있다. 대신 이근행의 진두대사 임명에 이어 “以經略之”라고 하였는데, 이 구문은 『자치통감』에서 넣은 구문으로 『삼국사기』가 해당 기사를 채용하면서 매초성 전투만 삭제함으로써 남은 것이다. 한편 『신당서』에 없는 유인궤의 귀환 내용이 『삼국사기』에 추가되어 있다. 이처럼 『삼국사기』 기사는 여러 형태의 편집이 가해진 만큼 675년 전쟁 상황은 『신당서』 기록을 준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칠중성 전투는 문무왕의 관작 삭탈 후 처음 발생한 전투로서 당시 전쟁의 전략적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칠중성의 위치와 당군의 전술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신라의 북방 거점으

11) 『新唐書』 권220, 列傳145 東夷 新羅, “上元二年二月 仁軌破其眾於七重城 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斬獲甚眾 詔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 屯買肖城 三戰 虜皆北”

12)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년 2월, “劉仁軌破我兵於七重城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以經略之”

13) 윤경진, 앞의 논문, 2017, 159-166쪽.

로서 칠중성의 의미와 더불어 당시 신라의 북방 영역의 상황에 대해 짚어보아야 한다.

671년 「答薛仁貴書」에 따르면 신라는 667년 고구려 공격 당시 칠중성을 打得하고 도로를 개통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곧 北漢山城을 거점으로 하던 신라가 임진강을 건너 北上할 때 칠중성이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신라는 이곳에서 水谷城 방면으로 올라가 방원령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진주하였다. 이와 함께 송악을 거쳐 예성강을 건너 자비령로 방면으로 진주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그런데 668년 고구려 공멸 과정에서 漢城(재령)과 大谷城(평산) 등 2郡 12城이 당에 투항하였다.¹⁴⁾ 이로 인해 신라는 평산 이남으로 밀리게 되었다. 한편 신라는 694년(효소왕 3)에 松岳과 牛岑에 축성하였다.¹⁵⁾ 이것은 終戰 후 신라가 확보한 영역에 대한 축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¹⁶⁾ 전쟁 당시 신라가 확보한 영역의 북방 경계를 반영한다.¹⁷⁾

신라는 당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공멸하는 과정에서 백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 범위는 ‘평양이남’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은 기존의 신라 영토만을 인정할 뿐이었다. 이에 신라는 평양에 이르는 영역을 직접 차지하고자 했는데, 당은 이에 대해 황제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擅取’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14)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8년 6월 22일, “府城劉仁願 遣貴干未盼 告高句麗大谷口漢城等二郡十二城歸服, 王遣一吉滄眞功稱賀”

15)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孝昭王 3년, “冬 築松岳牛岑二城”

16) 윤경진, 앞의 논문, 2017, 167쪽.

17) 673년 당군은 牛岑城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3년). 이는 당이 大谷城 확보 이후 그 이남 지역으로 군사 작전을 진행한 것을 보여준다. 당의 공격은 당시 이 방면에서 있었던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대응의 속성도 지닌다. 이 때 “高句麗牛岑城”이라 한 것을 보면, 당이 임진강 이북을 고구려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를 장악하고자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후 신라는 해당 지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였고, 그 결과로 우점성을 확보한 뒤 매초성까지 공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응함으로써 충돌이 발생하였다.

신라가 평양 내지 대동강을 목표로 북진을 도모하는 데 대해 당은 고구려 고토 지배의 거점이었던 평양을 교두보로 삼아 신라가 차지한 지역을 공략하였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해로를 통해 칠중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진출로를 차단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선이 형성된 내륙 방면에서 신라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 중 유인궤는 칠중성 공격을 이끌었고, 함께 파견된 이근행은 내륙 방면의 공격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당군이 칠중성을 공격한 것¹⁸⁾은 이곳이 임진강 이북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두보였기 때문이다. 고구려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신라가 임진강 이북으로 진출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에 당은 신라의 북방 진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이곳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新唐書』 劉仁軌 열전에서 그의 칠중성 공격이 瓠蘆河(임진강) 차단에 있음을 언급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¹⁹⁾

당군은 船兵을 이용하여 海路를 통해 임진강 하구로 진입하여 칠중성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당의 선병 활용은 두 가지 사실에서 추출된다. 하나는 말갈병으로 하여금 바다로 가서 신라의 南境을 공략하도록 했다는 기사이다. 바다로 간다는 것은 선박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당초 유인궤가 이끈 부대에 선병이 포함되어

18) 『삼국사기』 신라본기 675년 말미의 전투 기사에는 칠중성 전투와 小守 儒冬의 전사에 대한 기사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전투를 별개로 보고 신라가 앞서 상실한 것을 수복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李相勳,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の 買肖城 戰鬪」, 『新羅文化』 29, 2007, 110쪽, 주 86). 그러나 2월 전투에서 신라가 칠중성을 상실했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고, 말미 기사의 경우 신라가 守城戰을 벌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말미 기사가 주요 전과를 모아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 전투로 판단된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7, 176쪽).

19) 『新唐書』 권108, 列傳33 劉仁軌, “仁軌率兵絕瓠蘆河 攻大鎮七重城 破之”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다른 하나는 후술하듯이 유인궤가 熊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還國했다는 점이다. 유인궤가 칠중성에서 웅진으로 이동하려면 해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당군이 선병을 이용해 칠중성을 공격한 것은 앞서 673년의 전투 경험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唐兵이 靺鞨契丹兵과 함께 北邊을 침범해 왔는데 무릇 9번 싸워 우리 군대가 이겨 2천여 급을 斬首하니 唐兵이 瓠瀘河와 王逢河에 빠져 죽은 자가 이루 셀 수 없었다.²¹⁾

위의 기사는 673년 9월의 전황으로서 당군이 말갈 및 거란 군대를 이끌고 신라의 북변을 침공한 점은 675년의 전황과 유사하다. 그런데 위 전황에서는 선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 호로하는 임진강, 왕봉하는 왕봉현과 관련하여 한강 하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군이 이곳에서 빠져 죽었다는 것은 渡河 과정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를 통해 673년 당군은 육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역까지 진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668년 한성과 대곡성의 투항으로 남진의 발판을 마련한 당군은 한성에서 발생한 고구려 부흥운동을 제압하며 임진강 방면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 방면의 전투에서 당군을 물리친 신라는 이를 발판으로 평양 이남을 차지하기 위해 북진을 진행하여 예성강까지 이르게 되었다.²²⁾

당군은 앞서의 공격이 실패한 데다가 신라가 예성강까지 진출하자

20) 유인궤는 660년 요동을 공격할 때 수군을 이끈 경력이 있다(『舊唐書』 권84, 列傳34 劉仁軌, “(顯慶)五年 高宗征遼 令仁軌監統水軍”).

21)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3년 9월, “唐兵與靺鞨契丹兵來侵北邊 凡九戰 我兵克之 斬首二千餘級 唐兵溺瓠瀘王逢二河 死者不可勝計”

22) 효소왕 때 축성한 松岳과 牛岑은 나당전쟁의 결과로 신라가 최종 확보한 영토의 경계를 형성한 지역이다. 신라는 호로하 전투의 승리 후 예성강까지 진출하였고 이것이 675년 전투를 거친 후 신라의 영토로 귀착된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임진강 하구를 재차 공격하였다. 673년의 전투 역시 기사에서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호로하와 왕봉하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칠중성이 공격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라가 복상한 상태이므로 이번에는 선병을 이용하여 하구에 진입한 뒤 칠중성을 우회 공격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편 유인궤의 웅진 이동은 칠중성 공격의 또다른 목적을 시사한다. 그것은 평양과 웅진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신라가 중부 지역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이 한반도를 경략하는 거점이었던 평양과 웅진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교통로가 중요하였다.

660년 백제 공멸 당시 蘇定方이 이끄는 당군은 해로를 통해 진주하여 德物島(덕적도)에서 신라의 영접을 받았다. 이는 서해 교통로를 통한 군사 운영의 변모를 보여준다. 당은 백제 공멸에 이어 한반도 경략을 위해 서해 교통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 지역에 교통로를 연결하는 기착지들을 확보해 두어야 했다. 칠중성 공격은 연안 거점의 확보를 수반하는 작전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당은 칠중성 외에도 그 주변의 연안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 점에서 임진강-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한 권역에서의 전투를 상정할 수 있는데, 買蘇川城 전투와 泉城 전투가 이에 해당한다.

2) 買蘇川城 전투

『삼국사기』 金庾信 열전에는 그 아들 元述이 675년 買蘇川城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기사가 보인다.

乙亥年에 이르러 唐兵이 와서 買蘇川城을 공격하니 元述이 듣고 죽어서 이전의 치욕을 씻고자 하였다. 마침내 싸워 공을 세워 상을 내렸으나 부모에게 용납되지 못하므로 憤恨하여 벼슬하지 않은 채 그 일생을 마쳤다.²³⁾

23) 『三國史記』 권43, 列傳3 金庾信 下, “至乙亥年 唐兵來攻買蘇川城 元述聞之 欲死之 以雪前耻 遂力戰有功賞 以不容於父母 憤恨不仕 以終其身”

위 기사에 보이는 매소천성은 다른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고 전황도 단순하여 그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乙亥年은 675년이고 지명이 買肖城과 유사하여 이를 같은 곳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買肖城을 ‘매소성’으로 읽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매초성 전투와 매소천성 전투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매초성 전투는 당군이 주둔한 곳을 신라가 공격한 형태였다. 반면 매소천성 전투는 당군이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공격과 방어의 주체가 상반된 것이라는 점에서 두 곳은 다른 곳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⁴⁾

이 경우 매소천성은 買召城(인천)에 비정해 볼 수 있다. ‘買蘇’와 ‘買召’ 부분의 음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칠중성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점에 토대를 두고 보면, 이러한 비정은 좀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두 성의 위치가 서로 멀지 않기 때문이다.

유인궤는 칠중성 전투 후 靺鞨兵으로 하여금 바다로 가서 신라의 南境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남경이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다. 현실적으로 신라의 서남 해안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전투 지역보다는 후방이 될 것은 분명하다.²⁵⁾ 따라서 이들은 임진강 하구로 나와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주요 지점을 공격했을 것이다. 매소홀은 당군이 백제 공격 때 경유했던 덕물도를 직접 마주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연안 교통로의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3) 泉城 전투

천성 전투는 675년 9월 매초성 전투 바로 앞 기사로 나온다.

24) 김병희,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에 대한 고찰」, 『軍史』 91, 2014, 206-210쪽. 그런데 논자는 매소성(매초성)을 양주 대모산성으로 보는 입장에서 매소천성을 연천 대전리 산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매초성으로 비정되는 두 곳을 선택적으로 연결한 것 이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5) 이 南境은 실질적으로 熊津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벌포 전투와 관련하여 후술할 것이다.

薛仁貴가 宿衛學生 風訓의 아버지 金眞珠가 本國에서 주살되었으므로 풍훈을 끌어들이 鄉導로 삼아 泉城을 공격하였다. 우리 將軍 文訓 등이 맞서 싸워 이기고 1,400여 급을 베었고, 兵船 40척을 노획하였다. 仁貴가 포위를 풀고 물러가니 戰馬 천 필을 얻었다.²⁶⁾

천성 전투는 후술할 伎伐浦 전투와 마찬가지로 설인귀가 등장한다. 이 시기 설인귀는 유배 중이어서 신라 전선에 등장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천성 전투의 실체 또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천성 전투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조작된 사건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먼저 천성의 위치 비정과 함께 전투의 성격만 짚어 보기로 한다.

먼저 천성의 위치²⁷⁾에 대해서는 都彌 열전에 보이는 泉城島가 참고 된다.

아내가 바로 도망하여 江口에 이르렀는데 건널 수가 없었다.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니 홀연히 외로운 배가 파도를 따라 이르는 것이 보였다. 배를 타고 泉城島에 이르러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마침내 함께 배를 타고 高句麗 蒜山 아래에 이르렀다.²⁸⁾

위 기사는 백제 개루왕 때의 사적이다. 都彌의 아내는 왕을 피해 江口로 나와 배를 타게 되는데, 당시 백제가 한성에 도읍하고 있었고 도미의 아내가 왕을 피해 도망하는 점에서 이 江口는 한강 하구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배가 천성도에 도달한 후 高句麗 경내로 들어가게 되

26)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년 9월,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伏誅於本國 引風訓爲鄉導 來攻泉城 我將軍文訓等逆戰勝之 斬首一千四百級 取兵船四十艘 仁貴解圍退走 得戰馬一千匹”

27) 천성을 白水城과 같은 곳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예성강 하류로 보고 있고, 두 곳을 다른 곳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인천이나 오두산성 등으로 보고 있다(이상훈, 앞의 논문, 2007, 108쪽, 주 79) 참조.

28) 『三國史記』 권48, 列傳8 都彌, “婦便逃至江口不能渡 呼天慟哭 忽見孤舟隨波而至 乘至泉城島 遇其夫未死 掘草根以喫 遂與同舟 至高句麗蒜山之下”

므로 천성도는 한강 하구의 섬이 될 것이다. 여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항로를 고려할 때 기착지로서 상정되는 곳은 강화도나 교동도이다.²⁹⁾

그런데 항로가 고구려 방면으로 가는 것이라면 배가 기착할 수 있는 곳으로는 교동도가 더 유력해 보인다. 1370년 賀正을 위해 明에 파견된 사신 일행은 일차적으로 교동에 기착하였다.³⁰⁾ 이것은 교동도가 서해 방면으로 나가기 전에 기착하는 곳임을 보여준다. 예성강 하구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강이나 임진강 방면에서 오더라도 그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도미 부부가 기착한 천성도를 교동도로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당과 신라가 전투를 벌인 천성 또한 이곳으로 비정할 수 있다.

한편 천성 전투에서 신라는 당의 병선 40척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이 선병을 동원하여 전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유인궤의 칠중성 공격 때 선병이 동원된 사실과 칠중성에서 나와 남하하려면 교동도를 거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³¹⁾ 천성 전투는 칠중성 전투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남하 공격의 일환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천성 전투의 성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당의 보급 부대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³²⁾ 그러나 아버지가 숙청당한 원한을

29) 도수희는 도미 부부가 해로를 통해 고구려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천성도를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交河郡 관내의 일미도로 보았다(도수희, 「도미전의 천성도에 대하여」, 『한국지명연구』, 이회, 1999, 325-329쪽). 그는 이와 함께 오도산(오두산)에 비정될 여지도 간단히 언급했는데, 김윤우는 천성도가 일미도일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오도산에 비정하였다(김윤우, 「都彌史話에 관한 역사지리적 고찰」, 『京畿鄉土史學』 8, 2003, 349-352쪽). 그러나 천성도가 섬으로 파악되는 한 이를 섬이 아닌 오도산에 비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0) 『高麗史』 권43, 恭愍王 20년 11월, “咨中書省曰 於本年八月 遣同知密直司事鄭思道 駕海赴京 賀明年正 到喬桐島 船著淺穿漏 不得前去”

31) 강화도와 김포반도 사이의 鹽河는 물길이 험하기 때문에 이곳에 익숙하지 않은 당군이 이용했을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32) 徐仁漢, 『羅唐戰爭史』, 國防軍史研究所, 1999, 144쪽 ; 서영교, 앞의 책, 85-92쪽. 이에 대해 이상훈은 신라가 탈취한 것은 漕船이 아니라 兵船이라는 점을 근거로

가진 풍훈을 앞세운 공격이 보급 목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천성 전투가 당군의 공격으로 발생했다는 점도 보급 부대의 성격과 거리가 있다. 이 점에서 천성 전투는 칠중성 전투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전황을 바탕으로 후대에 윤색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기벌포 전투를 다룰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나. 阿達城·赤木城·道臨城·石峴城 전투

675년 당군의 공격은 내륙 방면에서도 이루어졌다. 유인궤의 칠중성 공격이 신라의 북방 진출을 견제함과 아울러 평양과 웅진을 연결하는 서해 교통로의 안정화를 꾀한 것이었다면, 내륙 방면의 공격은 신라의 북방 진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 전투는 李謹行이 주도하였다.

674년 고종이 유인궤를 雞林道大摠管에 임명하여 신라를 공격하도록 했을 때 이근행은 李弼과 함께 副將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뒤에 安東鎮撫大使에 임용되어 매초성에 주둔하며 신라와 전투를 벌였다. 이로 보아 이근행은 신라 전선에 투입된 후 매초성 전투가 있었던 9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신라와 전투를 벌였을 것이다.

이 때 그가 주둔한 매초성이 수곡성에 비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가 주로 내륙 방면에서 전투를 수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75년 말미에 정리된 4개의 전투 기사는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보인다.

천성 공격을 대규모 상륙전으로 이해하였다(이상훈, 앞의 논문, 2007, 110쪽). 그런데 기존 연구는 공통적으로 같은 9월의 매초성 전투와 연결하여 이해하면서 매초성을 임진강 수계로 보는 입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이상훈은 천성 전투와 매초성 전투를 연계하여 한강 방면을 공격하기 위해 육로와 해로의 이원적인 작전을 편 것이며, 이는 고구려의 백제 공격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매초성을 水谷城으로 이해하면 이러한 설명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 경우 천성 전투는 매초성 전투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칠중성 전투 및 이후 파악되는 해안 지역의 전황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① 靺鞨이 阿達城으로 들어와 劫掠하니 城主 素那가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② 唐兵이 契丹靺鞨兵과 함께 와서 七重城을 포위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小守 儒冬이 전사하였다. ③ 말갈이 또 赤木城을 포위하여 섬멸하였다. 縣令 脫起가 백성을 이끌고 맞섰으나 힘이 다하여 모두 죽었다. ④ 唐兵이 또 石峴城을 포위하여 함락하니 縣令 仙伯과 悉毛 등이 힘써 싸우다 죽었다. ⑤ 또 우리 군대가 唐兵과 크고 작은 18번의 전투를 벌여 모두 이겼다. ⑥ 斬首한 것이 6,047급이고 획득한 戰馬가 200필이었다.³³⁾

위의 전투는 675년 말미에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 전투 시점은 9월의 매초성 전투 이전으로 파악된다. 공통적으로 전투 지역과 지휘관의 전사 사실만을 정리하고 있는 것에서 이것이 이들의 포상과 관련된 자료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³⁴⁾

이 전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앞서 673년 9월에 진행된 전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호로하·왕봉하의 전황이 칠중성과 연관됨을 지적했는데, 그 해 겨울에 다시 신라에 대한 당군의 공격이 있었다.

겨울에 唐兵이 고구려 牛峯城을 공격하여 항복시켰다. 契丹과 靺鞨兵이 大楊城과 童子城을 공격하여 멸하였다.³⁵⁾

위에서 牛峯城(황해도 금천)은 황해도 중부, 大楊城(강원도 금강)은 강원도 서부에 해당한다. 童子城은 童城縣(경기도 김포)의 ‘본’ 읍호인 童子忽에 상응하여 한강 하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동자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앞서 보았듯이 바로 앞서 9월에 당군은 신라 북변을 공격했다가 패배하고 호로하와 왕봉하에서

33)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년, “靺鞨入阿達城劫掠 城主素那逆戰 死之 唐兵與契丹靺鞨兵 來圍七重城 不克 小守儒冬死之 靺鞨又圍赤木城 滅之 縣令脫起率百姓 拒之 力竭俱死 唐兵又圍石峴城拔之 縣令仙伯悉毛等 力戰死之 又我兵與唐兵大小十八戰皆勝之 斬首六千四十七級 得戰馬二百匹”

34) 윤경진, 앞의 논문, 2017, 176쪽.

35)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3년, “冬 唐兵攻高句麗牛峯城 降之 契丹靺鞨兵攻大楊城童子城 滅之”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 남쪽에 있는 동성현 방면을 공격하여 멸했다는 것은 전후 상황이 맞지 않는다. 당시 당군이 말갈 거란병과 작전을 행한 것에 비추어 대양성과 동자성의 전투는 연속성을 가지거나 하나의 작전 범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동자성을 지리적으로 전혀 관련되지 않는 김포 방면에 비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동자홀은 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비정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곳이 동해안의 童山縣(烈山縣 : 강원도 고성)이다. 동성현의 연혁을 보면 ‘본’ 음호인 童子忽 외에 “一名幢山縣 一云仇斯波衣”라는 주기가 있다. 이 중 仇斯波衣는 토착 지명을 제시한 것이고, 幢山縣은 童子忽의 한식 표기이다. 그리고 ‘幢(당)’과 ‘童(동)’은 발음 또는 字形에서 통용되거나 이표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동산현 또한 동자홀 내지 동자성이라는 명칭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동자성 전투는 한강 이남이 아니라 동해안 방면에서 발생한 것이 된다.

결국 673년 전황은 먼저 임진강 하구에서 일어난 데 이어 황해도 동부 내륙, 강원도 서부 내륙, 동해안 방면 등 네 방향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다. 675년의 전황과도 유사한 구도가 나타나는데, 이 중 임진강 하구 방면의 전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 구도를 염두에 두고 나머지 전투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한다.

1) 阿達城 전투

아달성은 安峽(강원도 이천)에 비정되는데,³⁶⁾ 이 전투는 素那 열전에 좀더 구체적인 상황이 소개되어 있다.

素那를 阿達城에 천거하여 北鄙를 방비하도록 하였다. 上元 2년 봄에 阿達城太守 級滄 漢宣이 백성들에게 某日에 일제히 나가 마를 심되 명령을 어기지 말도록 하였다. 鞞鞫의 첩자가 이를 알고 돌아가 酋長에게 고하였다. 그 날에 이르러

36) 전덕재,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韓國史研究』 173, 2016, 113쪽.

백성이 모두 성을 나가 밭에 있었는데, 말갈이 몰래 와서 성에 갑자기 진입하고는 한 성을 노략질하였다.³⁷⁾

위의 기사를 신라본기 기사와 대비하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발견된다. 우선 당시 전투가 ‘봄’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675년 말미의 기사가 실제 9월의 매초성 전투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곧 아달성 전투는 2월의 칠중성 전투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이다. 당군은 칠중성 공격과 병행하여 아달성에 대한 공격을 도모했던 것이다.³⁸⁾

다음에 당시 아달성의 주민과 군사가 성밖에 나가 마을 심는다는 사실을 알아낸 첩자가 ‘酋長’에 가서 고했다는 부분이다. 구문으로만 보면 이 말갈은 중부 내륙 지방에 있는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素那 열전에서 아달성을 ‘北鄙’라 하였고, 그가 아달성에 부임할 때 敵國에 인접했기 때문에 가족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부임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고구려 공멸 당시 신라는 수곡성까지 진출했다가 대곡성의 투항으로 인해 그 이남으로 밀린 상태였다. 따라서 그보다 후방인 안협 지역에서 토착의 말갈 세력과 인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본기 기사에는 아달성 전투가 당군과의 전황 속에 포함되어 인식되고 있다. 이 점에서 아달성에서 전투를 벌인 말갈은 당군이 이끌고 온 말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나 열전에서 아달성을 ‘北鄙’라고 표현한 것은 당군의 진주에 따라 신라가 그와 접경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곧 아달성은 신라가 확보한 북방 경계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敵國 또한 기존의

37) 『三國史記』 권47, 列傳7 素那, “遷素那於阿達城 俾禦北鄙 上元二年乙亥春 阿達城太守級滄漢宣 教民以某日齊出種麻 不得違令 靺鞨諜者認之 歸告其酋長 至其日 百姓皆出城在田 靺鞨潛師猝入城 剽掠一城”

38) 위 기사에서 2월의 전투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칠중성 전투보다 아달성 전투가 먼저 수록된 것은 그 시기가 앞섰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접경 대상이었던 고구려, 또는 그 구지를 차지한 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나 열전은 이를 말갈로 치환하여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추장은 말갈병의 지휘관이 될 것인 바, 바로 이근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듯이 이근행은 말갈 출신의 장수이다. 그가 말갈에 기반을 둔 客將인지 아니면 당에 동화된 장수인지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³⁹⁾ 분명한 것은 그가 말갈병을 이끌고 있고 신라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활동은 과거 신라의 북방 세력을 가리키던 말갈과 혼용되어 말갈 추장으로 표현된 것이다. 결국 아달성 전투는 매초성에 거점을 두고 있던 이근행의 군대가 인접한 신라의 북방 경계 지역을 공략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673년 당은 牛峯城을 함락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 이르러 남쪽이 아닌 동쪽의 이천 방향을 공격한 것인데, 이는 우잡 방향의 전선이 막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뒤이어 신라가 매초성(수곡성)을 공격한 사실을 감안하면, 신라는 673년 우잡성 함락 이후 다시 이를 차지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매초성에 있던 이근행의 군대는 동쪽에 인접한 아달성 방향을 공격한 것이다.

2) 赤木城·道臨城 전투

赤木城은 連城郡(交州)의 領縣인 丹松縣(嵐谷縣)의 ‘본’ 읍호가 赤木鎮(赤木縣)인 것에 근거하여 강원도 회양 지역에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 지역은 평양이나 수곡성에서 횡단 교통로로 연결되지 않는다. 회양은 朔州(춘천)와 朔庭郡(안변)을 연결하는 선상에 있으며, 이 지역들은 뒤에 9주의 하나인 朔州를 형성한다. 평양 방향에서 이곳으로 진주하려면 안변으로 넘어간 뒤 다시 회양으로 내려오는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적목성 전투는 삭주 방향에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어

39) 이에 대해서는 이상훈, 앞의 논문, 2007, 99-102쪽 참조.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문제는 671년 「答薛仁貴書」에 나오는 卑列城(比列忽: 안변)의 항방과 관련된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 공멸 과정에서 比列忽을 점거했으나 당은 본래 고구려 영토라며 환수를 지시하였다. 이에 신라는 비열성이 본래 신라의 고유 영토로서 고구려가 점거하던 것을 되찾은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이후 비열홀의 귀속에 대해서는 당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지배권을 유지하였고, 이것이 나당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⁴⁰⁾ 그러나 「답설인귀서」에서 신라는 비열성에 대해 “又取此城還與高麗”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미 환수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억울함’이 있어도 배반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역설한 것 또한 비열성의 환수를 유추케 한다.⁴¹⁾ 따라서 신라의 동북방 경계는 비열홀보다 후방으로 밀리게 되었는데, 이 중 삭주 방면에서는 회양 지역에서 경계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적목성은 아달성처럼 신라의 북방 경계 지역으로서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한편 道臨城 전투는 676년 7월 기사로 정리되어 있지만,⁴²⁾ 기사 구성이 675년 말미에 정리된 여러 전투들과 동일하여 당초 같은 자료에서 분리된 기사로 파악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전투들과 같은 맥락에서 그 위치와 의미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도림성은 金壤郡 영현인 臨道縣의 ‘본’ 음호가 道臨縣인 것에 의거하여 이곳에 비정되고 있다. 이곳은 현 고성과 통천 사이의 동해안에 해당한다. 이곳의 전투는 전술한 적목성 전투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비열홀 상실과 관련된다. 안변은 동해안 경로와 춘천에서 올라오는 추가령

40) 이상훈, 앞의 책, 2012, 39쪽 및 73-79쪽.

41) 윤경진,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백제의 영토의식과 溟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2016, 19쪽, 주 39) 참조.

42)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6년 7월, “唐兵來攻道臨城拔之 縣令居尸知死之”

구조곡 경로가 만나는 곳이다. 비열홀의 상실로 신라는 삭주 방면과 명주 방면으로 각각 밀리게 되었다. 이 중 삭주 방면의 경계 지역에서는 적목성 전투가 발생한 것이고, 명주, 곧 동해안 방면에서는 도림성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3) 石峴城 전투

석현성은 4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 과정에 그 용례가 보인다.

① 고구려왕 談德이 군대 4만을 거느리고 北鄙를 공격하여 石峴 등 10여 성을 함락하였다. 왕이 담덕이 用兵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서지 못하였다. 漢水 북쪽의 여러 部落이 많이 몰입되었다.⁴³⁾

② 백제 關彌城을 攻陷하였다. 그 성은 사면이 깎아지른 절벽이고 바닷물이 휘감고 있어 왕이 군사를 일곱 갈래로 나누어 20일을 공격한 끝에 함락하였다.⁴⁴⁾

③ 왕이 武에게 이르기를, “關彌城은 우리 北鄙의 요충인데, 지금 고구려 소유가 되었다. 이는 寡人之 痛惜하는 바이니 경은 마땅히 마음을 써서 치욕을 씻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병사 1만을 이끌고 고구려 南鄙 정벌을 꾀하니 武가 직접 士卒에 앞장서서 矢石을 무릅쓰며 石峴 등 5개 성을 수복할 뜻으로 먼저 관미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굳게 지키니, 武가 보급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⁴⁵⁾

위 기사는 392년 7월과 10월에 있었던 고구려 광개토왕의 백제 원정과 이에 맞선 393년 백제 아신왕의 고구려 원정에 대한 것이다. 고구려는 석현성 등 10여 성을 공취한 데 이어 백제의 북방 요새인 關彌城

43)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8년 7월, “高句麗王談德 帥兵四萬 來攻北鄙 陷石峴等十餘城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拒 漢水北諸部落多沒焉”

44)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원년 10월, “攻陷百濟關彌城 其城四面 峭絕 海水環繞 王分軍七道 攻擊二十日乃拔”

45)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2년 8월, “王謂武曰 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 遂謀將兵一萬 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 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圍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

을 함락하였다. 백제는 석현성 등을 수복하기 위해 먼저 관미성을 포위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

이 때 관미성은 “海水環繞”라고 한 것에서 해안에 인접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것이 임진강 또는 예성강 하구에서 벗어나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석현성은 이로 부터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할 것이다. 이 때 당군이 해로를 이용하여 칠중성 방면으로 진입하여 공격한 점과 결과적으로 칠중성을 ‘不克’한 것을 감안하면 석현성이 칠중성보다 남쪽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당군은 칠중성 방면을 공격함과 아울러 예성강 방면으로도 작전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석현성은 예성강 수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⁴⁶⁾ 당의 칠중성 공격이 임진강 수계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를 수반한다면, 석현성 공격은 예성강 수계의 장악을 의도한 것이다. 양자를 확보하면 당은 평양에서 한성을 거쳐 칠중성으로 연결 되는 경로를 온전히 확보함으로써 신라의 북방 진출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었다.

칠중성과 달리 석현성은 당군의 공격으로 함락되었다. 따라서 매초 성처럼 정전 후 신라의 영토로 귀속되지 못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함락이 반드시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석현성 함락 후 당군이 계속 주둔하며 지배력을 확보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아달성도 말갈병이 성내로 진입하여 사실상 함락되었다고 여겨지지만 결국 신라 영토로 귀속되었다.

여기서 4개 전투에 이어 신라가 18개 전투를 이겼다고 서술한 부분이 주목된다. 이 수치는 후술할 기벌포 전투 기사에 이어 정리된 22개

46) 4세기 기록에서 석현성과 함께 나오는 관미성은 임진강 하구의 오두산성(오도산성)으로 비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석현성이 예성강 수계라면 관미성이 임진강 하구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예성강 하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문제는 본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에 따로 논할 기회를 가지기로 한다.

전투 기사와 조응하는데, 여기서도 기벌포 전투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22개 전투를 승리했다고 적고 있다. 곧 신라는 개별 전투의 승패와 별개로 당시 벌어진 전투 전체를 신라의 승리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당군의 공격을 받은 신라의 성들이 대개 신라 영토로 귀착된 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한다.

신라가 당의 거점을 공격했다가 실패한 매초성과 당군이 선병을 이용해 공격한 칠중성을 논외로 하면, 위에서 언급된 아달성과 적목성, 도림성 등은 전쟁 당시 신라의 북방 경계였고 전쟁 종료 후 대개 신라의 경계로 자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⁴⁷⁾ 아달성이 적국과의 경계로 지목된 것에서 그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석현성 또한 일시적인 함락에도 불구하고 당군이 바로 철수했거나 신라가 수복함으로써 신라 영토로 귀속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석현성은 예성강 수계로서 하구와 송악 사이에 위치한 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처럼 675년의 전투는 당군의 칠중성 공격에 수반된 해안 방면의 전투와 신라의 북방 경계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로 양분된다. 후자는 예성강 수계의 석현성과 강원도 서부의 아달성, 중부 내륙의 적목성, 그리고 동해안의 도림성이 각 방면의 경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석현성과 아달성 사이는 효소왕 때 축성 지역으로 나오는 송악과 우잠이 자리한다. 이들을 연결하는 선이 바로 나당전쟁 종결 후 형성된 신라의 북방 영토 범위를 반영한다.

47) 다만 동해안의 比列忽은 신라가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후에 추가 진출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681년 군대를 보내 비열홀을 수비한 것은 그 반영이다(『三國史記』 권7, 文武王 21년 정월, “沙滄武仙率精兵三千 以戍比列忽”).

3. 伎伐浦 전투의 비판적 이해

가. 伎伐浦 전투 기사의 비판

기록상 나당전쟁의 마지막 전투는 676년 11월의 伎伐浦 전투이다. 이 전투는 중국 사서에는 나오지 않으며 『삼국사기』에만 보인다.

a. 沙飡 施得이 船兵을 거느리고 所夫里州 伎伐浦에서 薛仁貴와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b. 또 크고 작은 22차례의 전투에 나아가 이기고 4천여 금을 베었다.⁴⁸⁾

『삼국사기』에는 위의 기사 이후로 더 이상 신라와 당의 전투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벌포 전투를 기준으로 나당전쟁의 종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은 675년 9월의 매초성 전투와 그에 이은 문무왕의 관작 복구로 종결되었다. 그렇다면 기벌포 전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실상 기벌포 전투에 대해서는 일찍이 그 내용과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기사에 등장하는 설인귀는 上元(674-676) 연간에 유배 중이었기 때문에⁴⁹⁾ 676년 전투에 나타날 수 없으며 해당 전투는 그가 활동하던 671년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⁵⁰⁾ 하지만 이에 맞서 설인귀 열전의 기록이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上元中’으로만 기록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용이 상세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⁵¹⁾

이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전술한 675년 말미의 전투 종합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4개 전투의 전사자를 소개하고, 이어 18개

48)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6년 11월, “沙飡施得領船兵 與薛仁貴戰於所夫里州伎伐浦 敗績 又進大小二十二戰 克之 斬首四千餘級”

49) 『舊唐書』 권83, 列傳33 薛仁貴, “上元中 坐事 徙象州 會赦歸”

50) 池內宏, 앞의 논문, 1950.

51) 이상훈, 앞의 책, 2012, 50-51쪽.

전투를 포함한 전과를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전쟁의 종결을 통해 비로소 성립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열거된 4개 전투는 연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의 것을 모은 것이다. 676년 7월 기사로 정리된 도림성 전투도 이들과 같은 형태의 기사로서 역시 675년의 일로 파악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벌포 전투가 이들과 동떨어진 676년 11월에 발생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기벌포 전투 기사 또한 675년 말미 기사와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a는 기벌포 전투에 대한 것이지만, b는 별도로 22개 전투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기벌포 전투는 신라의 패전으로 기록된 반면, 이후 22개 전투는 승리를 말하고 있다. 이 22개의 전투 또한 당시 전황을 종합한 것이다. 675년 말미 기사가 4개 전투에 이어 18개 전투의 전황을 소개한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두 기사는 전투 수가 서로 일치한다. 675년 말미 기사의 전황은 아달성과 칠중성·적목성·석현성 등 4개 전투와 기타 18개 전투를 합치면 22개이며, 여기에 도림성 전투를 더하면 23개가 된다. 기벌포 전투 기사의 경우 기벌포 전투와 22개 전투를 합하면 역시 23개이다. 675년 2월부터 전개된 전쟁은 모두 23개의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며, 그 내용은 두 곳에 중복 기재된 셈이다.

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의 기사 구성을 보면 기벌포 전투 후 “又進”이라 하여 해당 부대가 연이어 22차례의 전투를 진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차 패배한 신라군이 이후 22차례의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전선이 아닌 기벌포에서 추가로 나아가 전투할 장소를 생각하기도 어렵다.

실상 “又進大小二十二戰 克之”라는 구문은 675년 말미 기사에서 “又我兵與唐兵大小十八戰 皆勝之”라는 구문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는데, 675년의 18개 전투가 신라의 北境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676년 기사의 22개 전투를 기벌포 전투의 연장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또한 기벌포 전투 기사를 추출 정리하고 나머지 22개 전투를 총괄 정리하면서 이를 연결하는 의미로 “又進”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⁵²⁾

한편 전과에 대해 675년 말미 기사에서는 6,047급으로, 기벌포 전투 기사에서는 4천여 급으로 다르게 적고 있다. 이것은 당시 전쟁의 종결과 신라의 전과에 대해 서로 다른 계통의 자료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때 기벌포 전투 기사는 매초성 전투 기사와 같은 계통의 자료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전과에 대한 서술을 통해 유추된다. 매초성 전투의 경우 戰馬 30,380필과 다수의 병장을 얻은 것으로 나오지만 적을 참한 수효는 나와 있지 않다. 반면 기벌포 전투 기사에는 참획한 수만 있고 노획품에 대한 내용이 없다. 675년 말미 기사에는 양자가 함께 나오며, 천성 전투 기사에도 참획한 수와 노획한 전선의 수가 함께 나온다. 이로 보아 기벌포 전투 기사의 전과는 매초성 전투의 전과에서 분리된 내용이 아닐까 한다. 다만 이것이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 편집된 것인지, 아니면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薛仁貴의 등장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池內宏은 그가 유배 중임을 근거로 이 전투를 설인귀의 활동 시기인 671년의 일로 보았지만, 이를 반드시 설인귀의 활동과 연결할 필요는 없다. 후술하듯이 설인귀 자체가 가락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설인귀 열전의 기록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열전 기록에서는 내용과 시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예가 흔하기 때문이다.

52) 22개 전투를 모두 설인귀와 벌인 해전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같은 지역에서 22차례의 해전은 생각하기 어렵다. 배근홍은 설인귀가 유배 중이었다는 점과 함께 웅진도독부가 철수한 상황에서 22차례 해전이 발생할 정도로 바다를 통한 물자 공급의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拜根興, 앞의 논문, 2002, 254쪽). 하지만 문맥상 두 구문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설인귀가 上院 연간에 발생한 사건, 곧 천성·기벌포 전투의 패배로 유배에 처해졌으나 676년 11월에 행해진 사면으로 실제 유배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견해가 있다.⁵³⁾ 곧 676년 11월 전투에 설인귀가 등장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문맥상 기벌포 전투는 신라군이 패배한 것이다. 문장의 주어가 신라가 분명하고 이어지는 ‘敗績’은 주어의 패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설인귀가 기벌포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유배되었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에 11월에 전투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의 유배가 결정되고 改元에 따른 사면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가 크다. 개원이 이루어진 壬申일은 11월의 전반부에 속하기 때문에 전투와 패전, 보고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면으로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열전에서 가지 않은 사실을 명시했을 것이다.⁵⁴⁾

여기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설인귀의 등장 자체가 기벌포 전투의 전황 설명을 위해 附會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곧 전투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설인귀를 등장시켰다는 것이다. 설인귀는 蘇定方과 함께 신라의 전쟁에서 두드러지게 인식된 중국 장수였다. 이것은 이들에 관한 설화가 남아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⁵⁵⁾ 또한 잘 알려진 671년 「답설

53) 이상훈, 앞의 책, 2012, 56-55쪽.

54) 설인귀가 유배되지 않았다고 보는 또 하나의 근거는 魏元忠이 설인귀에 대해 海東에서 활동하면서 공이 하나도 없는데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 기사를 들고 있다(『舊唐書』 권92, 魏元忠). 그러나 위원충이 말한 것은 ‘不誅’로서 일반적 처벌과 충위가 다르다. 그리고 탄핵을 위한 글이라는 점에서 극단적 표현의 요소도 감안해야 한다.

55) 소정방의 경우 백마강에서 용을 낚았다는 유명한 전승이 있다. 또한 『三國遺事』에는 그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후 신라까지 멸하러 하자 김유신이 唐兵을 독살했다는 설화도 실려 있다. 이는 그만큼 소정방이 신라의 전쟁에서 상징성이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인귀의 경우에도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신라가 그를 감악산의 山神으로 삼았다는 전승이 실려 있다.

인귀서」는 문무왕의 행위에 대한 당의 질책과 그에 대한 신라의 변론을 담고 있다. 당 황제의 명에 따라 신라를 질책한 인물이 설인귀라는 점에서 그는 나당전쟁에서 당군을 표상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실제와 별개로 특정 인물을 부회하여 사적을 설명하는 사례로 다음이 참고된다.

總章 戊辰에 왕이 군대를 이끌고 仁問欽純 등과 함께 平壤에 이르렀는데, 마침 唐兵이 고구려를 공멸하였고 당의 장수 李勣이 高臧王을 잡아 還國하였다. <<중략>> 그런데 鄉古記에 이르기를, “당이 陸路將軍 孔恭과 水路將軍 有相을 보내 신라의 金庾信 등과 진수하게 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仁問과 欽純 등을 말하고 庾信이 없으니 잘 알 수 없다.>⁵⁶⁾

위의 기사는 『三國遺事』에서 668년 고구려 공멸과 관련하여 고증한 내용이다. 문무왕이 欽純仁問과 함께 원정에 참여한 내용에 대해 一然은 중국 기록(생략된 부분)과 함께 ‘新羅古記’를 인용하여 고증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古記에는 흡순인문 대신에 유신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김유신은 고구려 출정 당시 大幢總官에 임명되었으나 문무왕은 그가 풍질이 있다 하여 왕경에 남겨두었다.⁵⁷⁾

이로 보면 신라고기는 실제 출정하지 않은 김유신이 참전한 것처럼 윤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료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삼국사기』 편찬 단계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다수 참고되었을 여지는 충분하고, 이 중에는 실제 채록되어 들어간 것도 있었을 것이다. 꾸며낸 말이 많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유신 열전 등에 채용된 「金庾信行

56) 『三國遺事』 권2, 紀異2 文虎王法敏, “總章戊辰 王統兵 與仁問欽純等 至平壤 會唐兵滅麗 唐帥李勣獲高臧王還國 <<중략>>而鄉古記云 唐遣陸路將軍孔恭水路將軍有相與新羅金庾信等戍之 而此云仁問欽純等 無庾信 未詳”

57)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8년 6월 29일, “諸道總管發行 王以庾信病風留京”

錄」은 그 예이다. 기벌포 전투 기사 원전의 이러한 맥락에서 설인귀의 참전을 가공하여 넣은 기록으로 짐작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675년 9월의 泉城 전투 기사는 기벌포 전투 기사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이 기사에도 설인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천성 전투 기사의 경우도 설인귀를 부회한 것이다.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천성 전투 자체가 실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매초성 전투 기사가 과장되고 승패를 뒤집어 놓았지만 해당 전투는 실재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천성 전투 또한 그 내용의 준거가 된 전투는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이 전투에 대해 설인귀와 관련된 사적을 넣어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는 것이 신라의 지휘관으로 나오는 文訓이다. 그는 661년 고구려 공격 때 참여하였고,⁵⁸⁾ 662년에는 中侍가 되었다.⁵⁹⁾ 그리고 665년 致仕하고⁶⁰⁾ 667년에 사망하였다.⁶¹⁾ 따라서 그는 675년 전투에 등장할 수 없다. 이를 동명이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특정 시기에 활동하였고 여러 차례 기사가 나오는 중요 인물에 대해 동명이인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시기의 기사가 들어온 것이거나 문훈을 부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훈이 사망하는 667년은 고구려를 공멸하기 전이다. 이 시기에 신라가 당과 직접 전투를 벌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가 포함된 천성 전투를 그가 활동하던 시기의 사건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해당 전투에 대해 후대에 그를 집어넣어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곧 천성 전투는 675년에 발생했지만, 그 내용은 후대에

58)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원년 7월 17일, “文訓眞純 爲河西州摠管” ; 『三國史記』 권42, 列傳2 金庾信, “(龍朔元年) 六月 唐高宗皇帝遣將軍蘇定方等 征高句麗 入唐宿衛金仁問受命來告兵期 兼諭出兵會伐 於是 文武大王率庾信仁問文訓等 發大兵向高句麗 行次南川州”

59)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2년 정월, “拜伊滄文訓爲中侍”

60)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5년 2월, “中侍文訓致仕 以伊滄眞福爲中侍”

61)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7년 12월, “中侍文訓卒”

설인귀와 문훈 등의 인물을 등장시켜 내용을 가공한 것이다.

역시 설인귀가 등장하는 기벌포 전투 기사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곧 675년에 시작된 전쟁 과정에서 기벌포 전투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설인귀와 관련된 사적은 부회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기벌포 전투는 실제 전쟁이 종료되는 675년 9월의 매초성 전투보다 1년 이상 지난 시점인 676년 11월 기사로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 문제와 함께 기벌포 전투의 실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탐구해 보기로 한다.

나. 伎伐浦 전투의 내용과 시점

기사에 등장하는 설인귀는 부회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벌포 전투 자체는 전쟁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그 소재가 된 전투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실제 발생 시점은 언제였을까.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은 船兵을 동원하고 있다. 이것은 역시 설인귀가 등장하고 선병이 동원된 천성 전투와 연결된다. 그리고 기벌포는 웅진으로 진입하는 하구라는 점에서⁶²⁾ 이 사건이 熊津都督府와 관련됨을 짐작할 수 있다. 천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의 연결성은 당군의 지휘관이었던 유인귀의 활동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칠중성 전투 후 웅진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음 자료를 분석해 보자.

a. 上이 籍田을 경작하였다. b. 처음에[初] 劉仁軌가 군대를 이끌고 熊津에서 돌아왔는데 扶餘隆이 신라의 핏박을 우려하여 머무르지 못하고 금방 역시 조정으로 돌아왔다.⁶³⁾

62) 기벌포는 현재 금강 입구인 서천군 장항읍에 비정되고 있다(沈正輔, 「百濟復興軍의 主要據點에 관한 研究」, 『百濟研究』 14, 1983).

63) 『資治通鑑』 권202, 儀鳳 2년 정월 乙亥, “上耕籍田 初 劉仁軌引兵自熊津還 扶餘隆畏新羅之逼 不敢留 尋亦還朝”

위에서 677년 정월 유인궤가 웅진으로부터 병력을 이끌고 귀국하였다는 사실은 676년 11월의 기벌포 전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유인궤는 675년 칠중성 전투 후 귀국했는데, 이후 어느 시점에 다시 백제 방면으로 투입되었다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유인궤의 재투입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기록에 나타나지 않지만 설인궤 역시 복귀했다가 기벌포 전투에 다시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⁶⁴⁾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기사 구성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이 기사에서 籍田 경작은 정월의 일이고 유인궤의 귀환은 ‘初’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귀환을 677년으로 단정할 수 없다. 실상 유인궤의 귀환은 적전 경작과는 내용적으로도 상관이 없다. ‘初’라고 한 구문은 대개 이후 어떤 사적을 설명하기 위해 그 앞에 있었던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다. 곧 이 구문은 정월 기사의 일부가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2월 기사의 도입부인 것이다.

2월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工部尙書 高藏을 遼東州都督으로 삼아 朝鮮王에 봉하고 遼東으로 돌려보내 高麗의 餘衆을 안집하도록 하였다. 고려 사람으로 먼저 諸州에 있던 자는 모두 고장과 함께 돌아가도록 하였다. b. 司農卿 扶餘隆을 熊津都督으로 삼아 帶方王에 봉하고 역시 돌아가 百濟 餘衆을 안집하도록 하였다. c. 이어 安東都護府를 新城으로 옮겨 통어하도록 하였다. d. 이 때 백제가 황폐하므로 隆에게 명하여 고려의 경내에 우거하도록 하였다.⁶⁵⁾

위의 기사는 보장왕과 부여릉으로 하여금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을 안집하도록 한 조치를 담고 있다. 고구려 유민 안집 기사를 축으로 하

64) 이상훈, 앞의 책, 2012, 53쪽.

65) 『資治通鑑』 권202, 儀鳳 2년 2월 丁巳, “以工部尙書高藏爲遼東州都督 封朝鮮王 遣歸遼東 安輯高麗餘衆 高麗先在諸州者 皆遣與藏俱歸 又以司農卿扶餘隆爲熊津都督 封帶方王 亦遣歸安輯百濟餘衆 仍移安東都護府於新城以統之 時百濟荒殘 命隆寓居高麗之境”

여 백제 유민 안집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고 있는데, ‘初’로 시작되는 구문은 이 내용에 대한 보완 설명이다. 곧 부여릉은 현지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유인궤를 따라 귀국했기 때문에 고려 지경에서 寓居하도록 했는데, ‘初’로 제시된 부분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2월 기사 앞에 넣은 것이므로 이를 정월 기사로 해석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구문을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다.

a. 왕이 백제를 평정한 뒤 고구려를 공멸하고자 唐에 군사를 청했다. b. 12월에 唐이 李勣을 遼東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司列少常伯 安陸과 郝處俊을 부장으로 삼아 고구려를 공격하였다.⁶⁶⁾

위의 기사는 666년의 것으로서 신라가 당에 청병하고 이에 따라 고구려 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때 기사 a는 앞의 4월 기록에 이어진다. 하지만 그 자체가 4월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뒤에 있는 기사 b, 곧 12월의 고구려 원정에 대해 그 동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既平百濟”라고 한 것에서 유추된다.

12월 기사는 『資治通鑑』에 있는 기사를 채록한 것으로서 고구려본기에도 같은 기사가 있다. 곧 『삼국사기』는 해당 기사에 대해 그 동기로서 “신라의 청병”을 삽입해 넣은 것이다. 따라서 이 기사를 가지고 당에 대한 청병이 4월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⁶⁷⁾

유인궤는 675년 8월 左僕射에 임명되어⁶⁸⁾ 이미 중앙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유인궤가 웅진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675년 2월 七重城 전투 후에 돌아온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의 귀환 기사는 기벌포 전투의 시점을 확인하는 방증이 될 수 없다.

66)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6년, “王以既平百濟 欲滅高句麗 請兵於唐 冬十二月 唐以李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以司列少常伯安陸郝處俊副之 以擊高句麗.”

67) 신라의 청병은 『삼국사기』에서 추가로 삽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사실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따로 논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68) 『資治通鑑』 권202, 上元 2년 8월 庚子, “以劉仁軌爲左僕射 並同中書門下三品如故”

그런데 유인궤의 칠중성 전투를 담은 『신당서』 신라전의 675년 2월 기사에는 유인궤의 귀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반면 『삼국사기』에는 칠중성 전투 후 그의 귀환을 언급하였다. 결국 『삼국사기』는 677년 2월 기사에 침입된 기사를 참고하여 그가 귀환 기사를 넣고 그에 이어 이근행이 안동진주대사로 임명된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때 유인궤가 熊津으로부터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칠중성 전투 후 웅진으로 갔다가 거기서 환국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때 부여릉도당으로 돌아왔다. 그가 유인궤와 함께 온 것인지 따로 온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후자라 하더라도 양자의 시차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이것은 熊津都督府에 대한 신라의 압박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당서』의 675년 2월 기사 중 첫머리에 칠중성 전투에 이어 말갈을 보내 바다를 건너 신라 南境을 공격하도록 한 내용이 주목된다. 이 부분은 『삼국사기』에는 빠져 있다. 매초성 전투가 빠지고 9월 기사로 따로 정리된 것을 감안하면, 이 또한 『삼국사기』 본문에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벌포 전투가 바로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⁶⁹⁾

기벌포는 所夫里州 소속으로 나오므로 그 자체가 南境은 아닐 수 있지만, 北邊의 전선에 비추어 남경으로 간주될 여지가 없지 않다. 특히 백제 고지의 온전한 확보를 위해 웅진도독부를 접수해야 하는 신라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군의 남경 공격이 바로 웅진도독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양상이 앞서 673년 전황에서도 보인다.

- a. 왕이 大阿滄 徹川 등을 보내 兵船 100척을 거느리고 西海를 진수하도록

69) 당이 공격하고자 한 南境을 한강 하류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이상훈, 앞의 논문, 2011, 353쪽), 이 지역을 南境으로 지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지역은 일차 공격 대상이었던 칠중성과 하나의 전황을 구성하므로 별도로 군대를 보내 공략한다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였다. b. 唐兵이 靺鞨契丹 군대와 함께 北邊을 침공하니 무릇 9번 싸워 우리 군대가 이겨 2천여 급을 베었다. 唐兵이 瓠瀘河와 王逢河에 빠져 죽은 것이 헤아릴 수 없었다.⁷⁰⁾

위의 기사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뉜다. a는 신라가 선병을 보내 ‘西海’에서 진수하도록 한 것이고, b는 당병이 말갈 및 거란과 함께 신라의 ‘北邊’을 침공한 것이다. 전황 상으로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통해 『삼국사기』에 서술된 당의 작전이 북변에 대한 침공과 더불어 해로를 통한 공격도 병행되는 구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서해는 웅진도독부 방면을 가리킬 것임은 물론이다.

675년 전황도 이와 유사하다. 유인궤가 이끄는 당군은 선병을 동원하였고, 이를 통해 신라 남경의 공략을 도모하였다. 이에 대해 이근행이 이끄는 군대는 매초성에 거점을 두고 아달성을 비롯해 신라 북변 전반에 걸쳐 공격을 가하였다. 곧 신라 북변에 대한 공격과 해로를 통한 남방 공격이 병행되었던 것이다.

신라가 북방 전선을 형성한 상황에서 당이 웅진도독부를 지원하려면 해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신라의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웅진도독부의 세력이 빠져나올 때에도 역시 해로를 이용해야 한다. 부여류이 당으로 돌아가는 경로 또한 이에 상응할 것이다. 따라서 신라가 웅진도독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해로를 통한 당군의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기벌포 전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결국 기벌포 전투는 문무왕의 관작 복구로 전쟁이 종결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675년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웅진도독부는 676년 2월에 철수하였다.

70)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3년 9월, “王遣大阿滄徹川等 領兵船一百艘 鎮西海 唐兵與靺鞨契丹兵來侵北邊 凡九戰 我兵克之 斬首二千餘級 唐兵溺瓠瀘王逢二河 死者不可勝計”

a. 安東都護府를 遼東故城으로 옮겼다. 이에 앞서 華人으로 安東에 재임하던 자는 모두 폐지하였다. b. 熊津都督府를 建安故城으로 옮기고 백제의 戶口로서 앞서 徐州와 兗州 등에 있던 자들은 모두 建安에 두었다.⁷¹⁾

위에서 당은 안동도호부를 遼東故城으로 옮기면서 웅진도독부도 建安古城으로 이동시켰다.⁷²⁾ 따라서 이후에는 더 이상 웅진 방면에서 전투가 벌어질 이유가 없다. 이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다시 기벌포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큰 것이다.⁷³⁾

그렇다면 11월이라는 시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11월이라는 시점은 그대로 인정하여 675년 11월에 기벌포 전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676년 7월 기사로 정리된 도림성 전투가 실제로는 675년 7월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라가 매초성 전투의 패배로 謝罪使를 보내 전쟁 종결을 도모했지만 이것이 관작 복구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그 사이에 ‘국지전’ 형태로 전투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기벌포 전투도 그러한 형태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시간적으로는 기벌포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자체가 전쟁의 종결을 유도하는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전쟁의 종결은 신라가 북방 진출을 포기하고 사죄사를 보내는 전기로서 매초성 전투를 준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것은 신라가 전쟁 중단

71) 『資治通鑑』 권202, 儀鳳 원년 2월 甲戌, “徙安東都護府於遼東故城 先是 有華人任安東官者 悉罷之 徙熊津都督府於建安故城 其百濟戶口先徙於徐兗等州者 皆置於建安”

72) 인용문의 ‘先是’가 이후 문장 전체에 해당한다고 보면 웅진도독부가 안동도호부 폐지 이전에 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안동도호부와 웅진도독부의 이동은 각각 별개의 기사로 정리된 것이며, ‘先是’는 안동 관리의 혁파가 도호부 이동에 선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73) 이에 기벌포 전투가 백제고지의 당 잔류군과 백제 유민, 반신라 인사 등을 철수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상훈, 앞의 논문, 2008). 그러나 이 시기까지 당의 잔류군이 있었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을 결정하고 사죄사를 파견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당군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기벌포는 전선이 형성된 북방 지역이 아니라 후방 지역이다. 백제 토지를 접수하는 것이 목적인 상황에서 신라는 당연히 당군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는 것이 순리이다. 당시 전투의 공수 관계는 분명치 않지만, 기벌포가 웅진의 입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신라가 이 방면에 진주한 당의 선군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당군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 지속을 의미하므로 사죄사를 보내는 행위와 상충하게 된다.

여기서 11월이라는 시점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도림성 전투 기사는 지휘관의 전사에 관련된 신라의 공식 자료이다. 기사가 분리되면서 연기에 오차가 발생했지만 月까지 오류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반면 기벌포 전투 기사는 설인귀가 부회된 것으로서 후대의 윤색이 가해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자료의 전승이나 내용 구성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여지도 상대적으로 높다.

『삼국사기』 공유 기사 중에는 年月에 오차가 발생한 경우가 종종 보인다. 일례로 장수왕의 한성 공략 기사는 신라본기에는 474년 7월 기사로,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는 475년 9월 기사로 되어 있다. 두 시점의 기사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계통의 자료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1년의 시차와 함께 月 표시에 오독이 있었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七’과 ‘九’의 경우 오독의 여지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준하여 기벌포 전투의 경우에도 1년의 시차와 더불어 月 표시의 오류가 상정된다. 다음 기사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9일<11일이라고도 한다>, 고구려 將軍 惱音信이 靺鞨 將軍 生偕와 군대를 합쳐 述川城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⁷⁴⁾

74)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武烈王 8년 5월, “久日<一云十一日> 高句麗將軍惱音信 與靺鞨將軍生偕 合軍 來攻述川城 不克”

위의 기사는 661년 5월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述川城을 공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문의 일자는 9일이지만 여기에 “一云十一日”이라는 註記가 있다. 곧 해당 기사에 異本이 있었고, 여기에는 ‘九’가 ‘十一’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 ‘九’를 ‘十一’로 오독한 상황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기벌포 전투 기사의 경우에도 원전에서 오독으로 인해 9월이 11월로 기재되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벌포 전투는 675년 9월 웅진 방면에서 발생한 전투가 된다. 2월의 칠중성 전투 후 당의 선병은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웅진을 지원하였고, 신라는 지속적으로 이 방면에 대한 방어와 견제를 도모하고 있었다. 北境 지역에서 9월까지 계속 전투가 진행된 것처럼 서해안 방면에서도 천성 전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졌을 것인데, 기벌포 전투도 그 중 하나인 것이다.

물론 오독의 가능성만으로 기벌포 전투의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난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기벌포 전투의 시점이 사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오독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는 나당전쟁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賈肖城 전투를 끝으로 전쟁이 마무리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위치도 水谷城으로 비정됨에 따라 당시 전황 또한 이를 준거로 새롭게 이해한 것이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74년 당 고종이 문무왕의 관작을 박탈하면서 촉발된 전쟁은 이듬해 2월 유인궤 등의 공격으로 현실화되었다. 唐軍의 전략은 해로를 통해 七重城을 공격하여 신라의 북방 진출로를 차단하는 한편, 경계가 형성

된 내륙 방면에서 신라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칠중성은 임진강 하구에 위치하며 신라가 북진하는 교두보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격하였다. 하지만 당시 신라는 예성강 지역까지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당군은 육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해로를 통해 임진강 하구로 진입하였다. 당의 船兵 활용은 말갈병으로 하여금 바다로 가서 신라의 南境을 공략하도록 했다는 내용과 유인궤가 熊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還國했다는 내용을 통해 뒷받침된다. 이러한 전략은 673년 육로를 통해 진주했다가 패배한 경험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유인궤의 웅진 이동은 당시 당군이 평양과 웅진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삼국사기』 金庾信 열전에 아들 元述이 675년 買蘇川城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기사가 보인다. 매소천성은 매초성과 같은 곳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공격과 방어가 반대로 되어 있어 같은 전투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매소천성은 買召城(인천)에 비정되며, 칠중성 전투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전투로 파악된다.

泉城 전투는 675년 9월 매초성 전투 바로 앞 기사로 나온다. 천성은 都彌 열전에 보이는 泉城島가 한강 하구의 섬으로 파악되는 데 비추어 교동도에 비정할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신라는 당의 병선 40척을 취하고 있어 칠중성 전투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신라의 지휘관 文訓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부회된 것이 분명하며, 당의 장수 薛仁貴 역시 부회된 것이다.

675년 당군의 공격은 내륙 방면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 전투는 李謹行이 주도하였다. 이근행은 매초성에서 신라와 전투를 벌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방면에서는 673년 9월에 牛峯城(황해도 금천)과 大楊城(강원도 금강), 童子城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동자성은 그동안 김포에 비정되었으나 동해안의 童山縣(강원도 고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73년 전황은 임진강 하구 방면에서 시작해서

황해도 동부, 강원도 서부, 동해안 방면에서 전개된 것인데, 이는 675년 전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阿達城(강원도 이천) 전투는 素那 열전을 통해 ‘봄’에 일어났으며 아달성이 ‘北鄙’로서 敵國에 인접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 보이는 말갈의 추장은 이근행을 가리킨다. 673년 우잠성을 함락한 당이 더 동쪽에 있는 이천 방면을 공격한 것은 신라가 다시 북진하여 우잠성을 차지했음을 시사한다.

赤木城은 강원도 회양에 비정되며, 朔州 방면에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라는 고구려 공멸 과정에서 比列忽을 확보했다가 당의 개입으로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동북방 경계도 후퇴하였다. 이 중 삭주 방면에서는 회양 지역에서 경계가 형성되었다.

道臨城 전투는 676년 7월 기사로 정리되어 있지만, 기사 구성이 675년 말미에 정리된 여러 전투들과 동일하여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곳은 현 고성과 통천 사이에 해당한다. 비열홀 상실로 신라는 명주 방면에서도 밀려나면서 도림성에서 경계를 형성하였다.

石峴城은 4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 과정에서도 보이는데, 이곳은 백제의 북방 요새로서 해안에 위치한 關彌城과 연계되어 예성강 인근으로 추정된다. 당군은 칠중성을 공격함과 아울러 예성강 방면으로도 진주하면서 석현성 전투가 발생하였다. 이곳은 당에게 함락되었지만 신라 영토로 귀속되었다. 675년 말미 기사에 4개 전투에 이어 신라가 18개 전투를 이겼다고 서술한 것은 개별 전투의 승패와 별개로 해당 지역이 신라 영토로 귀속된 것을 자국의 승리로 인식한 결과이다.

기록상 나당전쟁의 마지막 전투는 676년 11월의 伎伐浦 전투이다. 이 전투는 『삼국사기』에만 보이고, 지휘관 薛仁貴가 당시 유배 중이라는 사실로 인해 그 실체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 기록을 신뢰하는 의견도 있다.

기벌포 전투 기사에는 추가로 22차례 전투의 승리에 대한 서술이 이

어져 있다. 이는 675년 말미 기사에서 4개 전투를 소개하고 18개 전투의 전황을 설명한 것에 도림성 전투를 합친 것과 같은 수가 된다. 반면 구체적인 전과는 다르게 적고 있어 서로 계통이 다른 자료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기벌포 전투 기사는 매초성 전투 기사와 같은 계통의 자료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두 기사가 각기 노획과 참획 중 한 쪽만 정리하고 있다는 데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설인귀의 등장은 후대의 시각에서 부회된 것이다. 시간적으로 그가 유배에서 풀려나 전선에 투입될 여지는 없다. 그보다는 문무왕과 대척점에 서 있던 설인귀를 등장시켜 극적 효과를 높인 것이라고 본다. 泉城 전투 기사에 설인귀가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벌포 전투 자체는 실재한 것이지만 그 시점은 조정해서 이해해야 한다.

기벌포는 웅진으로 진입하는 하구라는 점에서 이 전투는 熊津都督府와 깊이 관련되며, 칠중성 공격 후 웅진으로 갔다가 귀국한 유인귀의 활동과도 연결된다. 유인귀의 귀국은 『자치통감』에서 677년 정월 기사로 나오지만, 이것은 2월에 高藏(보장왕)을 遼東州都督으로 삼고 扶餘隆을 熊津都督으로 삼은 기사에 대해 ‘初’라 하여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유인귀는 675년 8월 左僕射에 임명되어 이전에 중앙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신당서』 신라전의 675년 2월 기사에는 유인귀의 귀환 기사가 없어 『삼국사기』가 해당 기사를 삽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말갈을 보내 바다를 건너 신라 南境을 공격하도록 한 내용은 『삼국사기』에 없다. 매초성 기사가 분리 정리된 것에 비추어 남경 공격에 상응하는 내용이 상정되는데, 기벌포 전투가 그와 관련된다.

673년 신라는 당군의 北邊 공격에 맞서는 한편 兵船을 보내 西海를 진수하도록 한 바 있다. 675년에도 당은 북변 공격과 병행하여 웅진 방면에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신라는 웅진도독부를 압박하기 위해 해로를 통한 당군의 지원을 차단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벌포 전투가

발생한 것이다. 웅진도독부가 676년 2월에 철수한 것에 비추어 기벌포 전투는 675년의 일로 파악된다.

11월이라는 시점과 관련하여 매초성 전투와 사죄사 파견 후 국지전 형태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라가 더 이상 당군을 공격할 이유가 없고 기벌포가 경계 지역이 아님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다. 기벌포 전투 기사는 후대의 윤색이 가해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시점의 오류가 상정된다.

장수왕의 한성 공함 기사는 편목에 따라 1년의 시차와 7월9월의 차이가 보인다. 기벌포 전투도 11월은 다른 시점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661년 5월 9일 고구려의 述川城 공격 기사에는 “一云十一日”이라는 주기가 있어 ‘九’와 ‘十一’의 오독 가능성이 상정된다. 이에 비추어 기벌포 전투의 시점을 11월이 아니라 9월로 보정하여 이해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7. 7. 6, 심사수정일: 2017. 8. 14, 게재확정일: 2017. 8. 21]

주제어 : 羅唐戰爭, 買肖城, 七重城, 伎伐浦, 薛仁貴

<Abstract>

A new understanding of the war situation at the final phase of the Shilla-Dang war

Yoon, Kyeong-Jin

The study of this article is the analysis on the several major battles fought between the troops of Shilla and Dang troops, based upon a new suggestion that the war itself was ended in the year of 675 with the battle at the Maecho-seong(買肖城) fortress. At the time, there were two types of battles: battles in which the Dang forces tried to obtain coastal areas for future skirmishes, and battles which were fought along Shilla's northern borders. Battles at Chiljung-seong(七重城), Maesocheon-seong(買蘇川城), Cheon-seong(泉城) and Seokhyeon-seong(石峴城) fortresses seem to have belonged to the former type, while battles at Adal-seong(阿達城), Jeokmok-seong(赤木城) and Dorim-seong(道臨城) fortresses could be categorized as cases of the latter. In the meantime, the story of the Gibeol-po(伎伐浦) battle seems to have been established as a composite, concocted from the tale of the Wungjin Dodok-bu(熊津都督府) dismantlement, as well as the story of Dang general Seol In-gwi(薛仁貴).

Keywords : Shilla-Dang war(羅唐戰爭), Maecho-seong(買肖城),
Chiljung-seong(七重城), Gibeol-po(伎伐浦), Seol In-gwi(薛仁貴)